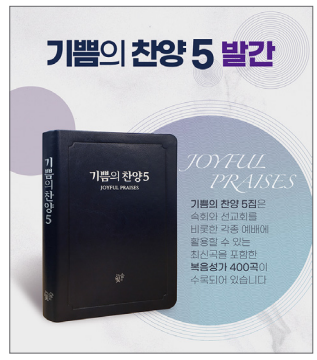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회복과 비상을 꿈꾸며

청장년부 〈제14회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캠프〉

하나님이 세워주신 회복의 역사 '회복 - 하나님의 사람'

2020년 청장년부는 '만 35세~39세의 1인 가정과 다인 가정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었다.

이에 상반기에 새로운 구성원들을 맞이한 청장년부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이라는 목표와 기대감을 가지고 8월 아가세 캠프를 준비하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장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아가세 캠프와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 매일 저녁 9시 정시 기도를 진행하며 마음을 모았다.

지금까지 청장년부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이하 아가세) 캠프는 전통적으로 외부에서 1박 2일에 걸쳐서 진행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오후 1시 30분 정규모임 시간부터 저녁예배까지 섬기는 일정을 포함하여 ONE DAY 캠프로 진행하였다.

8월 16일(주일) 아가세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에서는 귀한 은혜의 만남들이 이어졌다. 처음 만나는 지체들과 오랫동안 보지못했던 얼굴들이 곳곳에서 등장하였다. 마치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쳤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예방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했기에 조금 더 떨어져 앉아야 했지만, 컨벤션 B홀 중앙의 자리들이 모두 채워졌고 자리가 부족하여 옆에 준비한 여분의 좌석들을 옮겨야 하는 은혜가 있었다.

캠프 직전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 졌지만 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자는 청장년부의 열정이 모여진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주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된 뜨거운 집회, 찬양과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 사랑이 넘치는 교제의 시간, 마지막 저녁예배와 청장년부 모두가 함께 올려드린 특송의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셨고 모든 시간 동안 놀라운 사랑의 교제와 은혜가 넘쳐났다.

모든 캠프를 마친 후 정다운 속장은 "딸 서현이가 왜 예수님이랑 같이 걸어가야 돼요? 라고 물었는데 저희 부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냥 예배시간을 버텨주기만 바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저녁예배 때 올려진 청장년부 소개영상에서 청장년부 오솔샘 속장은 "바쁜 사회생활과 육아로 신앙을 놓칠 수 있는데, 청장년부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는 귀한 공동체"라고 전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청장년부 공동체의 주일 정기 모임은 매주 오후 1시 30분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B홀에서 진행된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가정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형순 전도사(청장년부)

2 광림의 강단 성실함과 열심을 품고 섬기는삶
3 광림 스토리 임시구역회
4 하나님을 만나다 사랑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5 다음세대 고등부 여름특별예배
6 특집 광림수도원을 가다 - 3
8 특집 청년부 교육선교

성실함과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삶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헝가리의 축구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푸스카스 페렌츠(Puskas Ferenc)는 1950년대 헝가리 축구 대표팀을 가장 강력한 팀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뛰어난 활약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축구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잠잘 때도 축구만 생각합니다"라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축구에만 미쳤다고 할 만큼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푸스카스를 당대 위대한 선수로 만든 것입니다. 푸스카스의 열정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게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바울은 푸스카스 이상의 열정이 있었던 사도입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고후 5:13)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삶을 돌아보며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섬기는 삶을 살라

바울은 믿음 생활의 핵심은 '섬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5).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역시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10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13절)라는 구체적인 섬김의 방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냐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나 자신과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13절

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둘째, 열심을 품으라

바울은 주님을 섬길 때 "열심을 품고 섬기라"(11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받고자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은 목적의 순수함과 적극성을 말합니다. 곧 주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준에서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웃의 기준을 원수에게까지 확장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 12:14)고 말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롬 12:19~20). 이웃을 대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지라도, 어떠한 악의도 품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 도망칠 때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였지만(삼하 16:7~8), 다윗은 그 저주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시므이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란군을 제압한 뒤 시므이가 나아와 머리를 조아렸을 때에도 흔쾌히 용서하며,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휩쓸리거나 어떠한 보상을 바라며 남을 대하기보다, 열심을 품어 늘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 성실하라

바울은 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11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속성과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평생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성화'(sanctification)가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웨슬리는 자신의 목회 수첩을 꺼내더니 "내가 할 일은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과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실한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신앙의 여정에 등불이 됩니다. 누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을 때, 성실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성장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김정석 담임목사,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로 추대

8월 12일, 수요예배 후 〈임시구역회〉 열려

김정석 담임목사의 서울남연회 감독 출마 여부를 묻는 임시구역회가 8월 12일(수) 수요치유의 신학 예배 직후 광림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홍헌 감리사(강남지방) 주재로 진행된 이 날 임시구역회에서 광림교회 성도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김정석 담임목사가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로 추대되었다. 회의에는 교역자, 장로, 권사, 선교회장, 속장 등 감리교 교회와 장전에 의거한 구역회원 2,078명 중 과반이 넘는 1,498명이 참석했다. 감독 출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486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99.2퍼센트의 찬성표를 얻어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 출마 자격을 얻었다.

광림 교인들의 투표를 거쳐 감독 출마 요건을 모두 충족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9월 말, 연회 감독과 감독회장을 뽑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선거에서 서울남연회 감독의 사명이 주어질 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광림교회가 받은 축복
한국교회와 함께 나눠야 할 때

이홍헌 감리사는 수요 예배 설교에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모세 이후 강력한 지도자의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고, 온 백성에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하셨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처럼 김정석 담임목사가 감리교단과 한국교회를 이끌 적임자로 뽑혀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독 출마 안건 통과 후 마치는 기도에서 이홍헌 감리사는 "김정석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광림의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존 웨슬리처럼 감리교단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구했다.

광림의 권속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김정석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광림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를 통해서 광림교회가 누렸던 축복이 한국교회와 감리교단 전체에 흘러넘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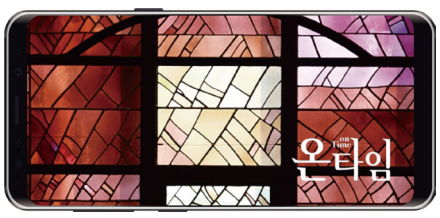
우리교회 이래서 좋아요

〈온타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ON 하는 거룩한 습관

광림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림교회 채널에 매일 '묵상 동영상' 업로드

'온타임(ON Time)'은 우리 교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성경통독 묵상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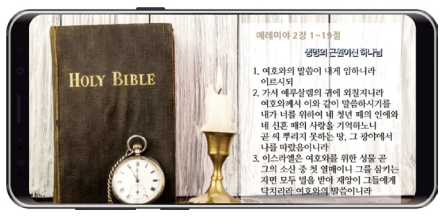
'On Time'은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각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다. 온타임을 통해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경건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다.



광림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림교회 채널에서는 '온타임 매일 묵상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묵상 동영상'은 '오늘의 성경말씀 읽기 → 말씀길잡이(해설) → 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별히 '묵상 동영상'은 부목사들이 나레이션에 참여하여 제작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묵상 동영상'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로서 '묵상 동영상'은 7분 내외로 제작되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출근길 혹은 퇴근길,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등에 쉽게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혼자서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묵상 동영상'을 통해 말씀 앞에 서고 매일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양식을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함을 얻을 것이다.

'묵상 동영상'을 보며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 온타임 묵상 동영상 시청 방법 〉

▶ 광림교회 홈페이지(klmc.net)
➡ 광림방송 ➡ 묵상

▶ 유튜브(Youtube)에서 '광림교회 온타임' 검색

유튜브 바로가기

YouTube 광림교회 온타임

"정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ON하는 거룩한 습관"

성경통독을 위한 묵상집입니다.

부록 선교회 말씀나눔, 빛의숲 속회공과 나눔형 교재 수록

〈 온타임 정기구독 신청 방법 〉

▶ 빛의숲 서점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 (02. 2056. 5771)

▶ 1년 구독료 : 30,000원

포토 뉴스

광복 75주년 기념 예배
8월 16일(주일)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렸다.

청장년부 아가세캠프
8월 16일(주일) 청장년부
아가세캠프를 열었다.

고등부 여름특별예배
8월 16일~30일 까지 고등부
특별예배를 드렸다.

여름성경학교 보고예배
8월 23일(주일) 저녁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온라인
보고예배를드렸다.

담임목사 동정

8/12	강남지방 임시구역회
8/16	광복절 기념주일예배
8/23	주일예배
8/23	성경학교 보고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찬송 받으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IMF 시기였던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년 동안 인테리어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다고 생각되었던 사업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점점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1년여의 항암과 투병과정을 같이 하며, 사업은 직원에게 맡겨놓고 소홀히 하다 보니 회사 형편은 더 악화되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교구 목사님과 지구장님께서 매주 월요일에 사무실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셨고, 그렇게 월요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을 꼬박 월요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성대 쪽에 작은 종양이 생기는 육체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달리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셨고, 마음은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비록 전과 같이 좋은 음성으로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고음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지만, 여전히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남선교회의 각종 모임에서 불러주시는 찬양 봉사에 은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시18:1~3)라는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 봉사를 할 때, 항상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환경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2020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위에 함께하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조승현 권사
(남선교회총연합회 기획본부장)

성경퀴즈 전화로 풀고 집으로 선물 배달받아

〈사랑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사랑부는 지난 8월 2일과 9일 두 주일에 걸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천로역정〉이란 주제로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 63명의 발달 장애인이 부모님 또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가정과 인근 카페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실시간 전화퀴즈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들의 기저질환과 면역력을 고려하여 상황이 보다 더 안정될 때까지 사랑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성경학교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기획 단계부터 모든 것이 그야말로 '도전'이었다.
우선, 교역자들은 작은 화면에 집중하기 쉽지 않을 장애인들의 예배 환경을 고려하여 말씀을 과감히 10분 내외로 조정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특수 기술과 효과를 이용하는 등 예배 기획의 변화를 꾀했다. 한편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찾아가 집 인근 카페에서 만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성경학교 참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열정을 보였다. 부모님들 역시 핸드폰을 컴퓨터나 TV화면에 연결하여 보다 더 큰 화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참여를 돕고,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과 분반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다.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는 사전 신청을 받아 각자의 집으로 공과와 활동 자료가 담긴 키트를 보낸 후, 주일 온라인에서 말씀을 배우고, 영상 분반과 실시간 전화퀴즈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실시간 퀴즈쇼 '보니하니'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실시간 전화 연결을 통해 방금 배운 말씀을 퀴즈로 다시 풀고, 정답을 맞추면 돌림판을 이용해 뽑힌 치킨, 피자, 천로역정 만화책 등 선물을 집으로 보냈다. 전화 연결을 통해 오랜만에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안부를 확인하며, 퀴즈를 맞추는 기쁨도 함께 누렸다.

사랑부 위원장 우형진 권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오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성경학교는 특히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서준영 교사는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사랑부 학생들은 찬양할 때 정말 크게 기뻐하며 은혜가 넘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루빨리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정순 기자 lillypink60@hanmail.net

실업인선교회, 심방과 정보교류로 은혜 나눠

매월 두 번째 주일 〈조이 하모니〉 찬양예배 드려

매월 둘째주 3부 주일예배가 끝난 후 사회봉사관 3층에 있는 광림교회 실업인선교회 사무실에는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실업인 선교회원 10명으로 구성된 〈조이 하모니〉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하기 때문이다.
실업인선교회(위원장 문송철장로)는 연간 행사계획을 세워 매주 정해진 순서를 진행하는데 매월 두 번째 주일은 음악위원회 주관 찬양예배를 드린다.
첫 번째 주일에는 임원회의와 위원장 주관 예배를 드리며, 세 번째 주일은 목회자가 말씀을 인도하는 월례회 예배, 넷째 주일은 내·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시간을 가지는데 이때는 선교회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조이하모니 단장인 이현두 권사는 "회원들 모두 아마추어지만 은혜롭게 찬양하는 유명한 찬양단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실력도 키워 나가고,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서로 감동을 받고 성령체험을 하기도 한다. 기타와 키보드에 맞추어 찬양을 하지만 오카리나와 색소폰을 다룰 수 있는 회원도 있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고 전했다. 조이하모니는 둘째 주일 뿐만 아니라 매주일 정해진 순서를 진행하기 앞서 찬양의 시간을 이끈다.

실업인선교회는 1983년 4월 시작하여 38년째 광림교회를 대표하는 선교회 중 하나로 발전해 왔다. 6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는 등록교인으로 최고경영자, 임원, 전문직 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데 1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선교지원, 각종 교회행사에 적극 참여, 지속적인 사회사업 지원, 기도회를 통한 영성 함양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베트남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열어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호치민시에 있는 광림미션센터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참가비와 성금으로 월드비전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돕기에 후원하였다.

금년부터 새롭게 실업인선교회 위원장 직분을 받은 문송철장로는 "처음 맡았을 때의 다짐은 회원을 배가 시키고, 회원간 서로 경영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업장 심방과 더불어 컨설팅을 하여 서로 큰 유익이 되었으면 했다. 8개월이 지났는데 회원들이 꾸준히 새롭게 들어와서 감사를 드린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회원들이 합심하여 중보기도를 해 줄 수 있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 매년 광림교회의 선교활동을 돕는 행사를 하였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춤한 상태이다. 가을에 일정을 잡아 추계영성수련회를 할 계획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 전파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지금이지만 실업인선교회는 그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조언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LFC 광림 청년부 여름 특강〉

광림교회 청년부는 이번 8월 한 달간 여름 방학 특집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목요 쉐키나 워십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특강을 통해서 20~30대의 청년들이 갖는 주된 고민들을 주제로 삼아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진행된 1주차 특강에서는 '연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송화재 대표(김포아리심리센터)의 강의를 통해 크리스천의 연애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연애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연애를 통해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자세를 갖추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 서로가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지난 8월 20일 진행된 2주차에는 '진로'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헌주 박사(연세대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상담전문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정할 때 필요한 관점과 방향성들을 나눴습니다.

특강에 참여했던 김솔아 속장은 "특강 때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부분이 특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전했고, 김현우 속장은 "크리스천으로서 연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목적 부분을 잘 풀어 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게 된 여름 쉐키나 특강은 청년부 김수경 전도사의 '대인관계'라는 주제로 실시됩니다. 취업난, 잦은 이직 등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실제적인 고충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를 얻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시간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청년들이 세워지고,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순종한 요나처럼 꿈과 비전 하나님께 맡겨요!

고등부 〈여름특별예배〉 드리며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져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처럼 코로나19가 마치 나라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위기 속에 있지만,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모인 광림의 청소년들이 있다.

광림교회 고등부는 8월 16일(주일) 정규예배 시간에 사회봉사관 4층에서 여름특별예배를 드렸다. 이 시간만큼은 학업, 진로, 가정, 친구 등의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기쁘게 목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등부를 위한 여름특별예배에 김호영 목사(교육국)와 김주송 목사(청년부)가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요나서의 '변화'를 주제로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했다.

김주송 목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학창시절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자리와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사명을 받은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허 조(고등1부) 학생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이 예배가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도합니다"라며 예배의 은혜를 전했다.

교사와 학생들 한마음으로 기도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한마음으로 격려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기도 릴레이를 이어갔다. 힘겨웠던 지난 순간들을 아뢰면서 요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주시길 간구했다.

김병남 장로(고등교육위원장)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순종의 땅 니느웨로 나아간 것처럼 고등부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예배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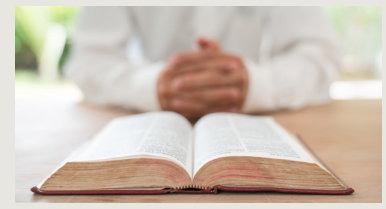
특별예배 첫날인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일부 활동프로그램이 축소되고, 23일, 30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예배로 전환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었지만 교사들과 학생들은 더욱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미라클 메이커스 고등부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소현수 기자 camncow@naver.com

신앙 간증

속장의 사명을 진실하게 잘 감당해요



청년부 4교구에서 속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진호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때 모든 걸 채워 주시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는 합당한 대가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해외선교 팀장으로 순종하며 섬기게 되었을 때 팀원모집부터 선교회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선교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선교를 통하여 새로운 직업과 직장의 길도 열어주시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속회(작은 교회)의 리더로 선다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리더의 자질이 있을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속장으로 섬기라고 길을 열어주실까? 아직 좀 더 교육받고 천천히 하고 싶은데.. 지금 해야 되나?' 라는 질문과 궁금증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은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순종하면서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서 감당하고자 할 때에 축복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건 저희 모두가 믿고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합리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속회 모임과 교구 모임 등 모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게 맡기신 사명을 진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속장으로 섬기게 된 처음 모습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세계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신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호 속장 (청년부)

경찰 선교에 앞장서

- 목회현장 -

강태석 목사 (국립경찰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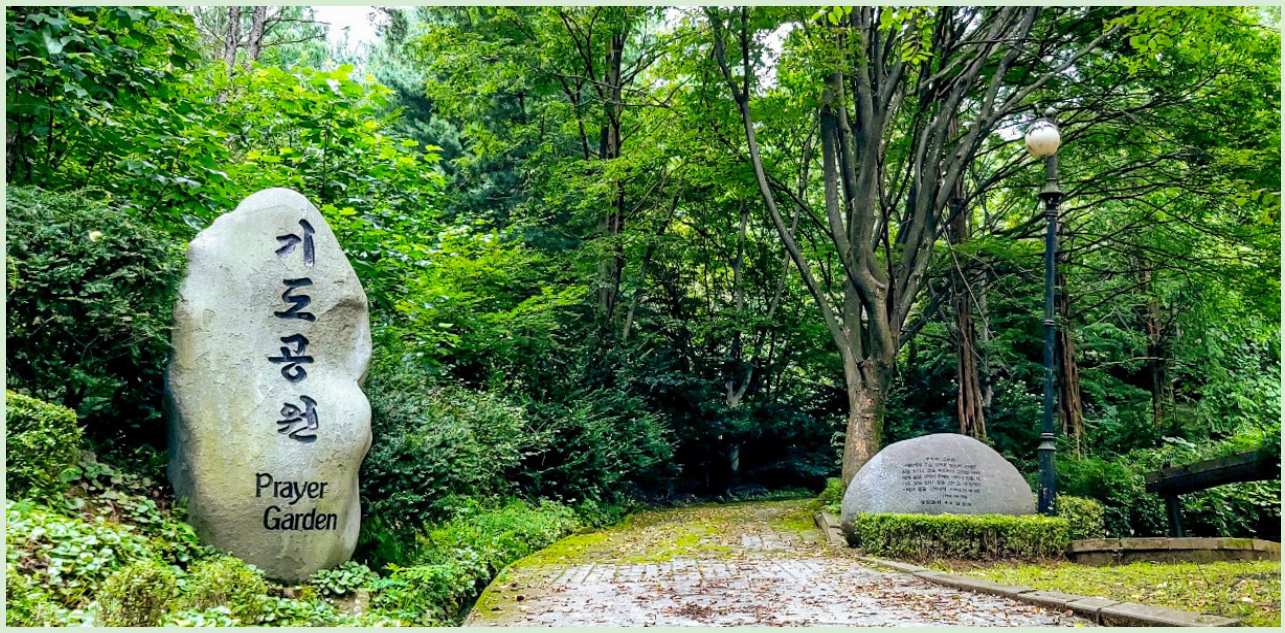
경찰병원은 국내 최고의 공공 국립의료기관으로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무경찰포함)과 그 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진료를 전담하는 국립기관으로 500병상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병원 경목실은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2000년 본관 3층에 성전을 봉헌하고 경찰병원 교회로 명명하였습니다. 현재 강태석목사가 파송되어 경찰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찰병원 교회는 초교파 선교기관으로 환자들과 800여 직원들의 복음화를 위해 정규 예배(주일, 수요, 새벽기도회, 신우회), 기도회, 성경공부와 심방 및 전도, 다양한 봉사(이미용, 도서, 호스피스 환자 케어) 등 돌봄과 섬김의 선교를 통하여 매월 평균 30여명의 결신자를 맺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병원 선교는 세계를 흔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방역의 중심에 서있는 경찰병원은 기관의 특성상 현재 예배 및 소모임이 완전 금지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언택트와 뉴노멀의 상황 속에서도 경찰병원교회는 설교가 담긴 주보를 인쇄하여 각층에 있는 도서대 마다 비치하고, 유튜브로 설교를 제작하여 환자분들이 병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경대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을 비롯하여, 피아노, 기타 등 레슨 및 연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음악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이 회복된 대원들을 초청하여 조촐한 위로의 시간을 가졌으며, 각종 시험 및 학습을 준비하는 대원들을 위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의 선교적 노력과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비드19로 인한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경찰병원에서 활발한 선교가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림수도원을 가다 – 3 기도공원

광림수도원은 성도들의 영적 고향이다. 그중에서도 기도공원은 깊은 영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다. 1992년 5월 30일 봉헌된 기도공원은 주님의 공생애 중 주요 사역을 상징하는 조각물로 조성된 되어있다.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 여인과 예수님' '최후의 만찬'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지나면 회개의 계단을 오르게 된다. 이어서 '겟세마네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과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 의 11개 처소 길을 굽이굽이 돌아 하나씩 오르면 마침내 부활의 동산에서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기도공원 내에는 곳곳에 기도처가 있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한걸음씩 내딛는 '회개의 계단'에서의 묵상 기도는 스스로 믿음의 길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한다. 또 기도공원에는 야외 음악당 '에베소 광장'이 있어 음악회, 특별 야외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기도공원은 광림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스런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주님의 길을 만들고 있다. 연못과 옹달샘 , 봄이면 아름다운 벚꽃 길과 여름에는 탐스러운 목수국, 가을이면 단풍진 메타세쿼이아 길로 기도공원을 찾는 많은 성도들의 영성 훈련과 더불어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1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마19:14)

2 치유하시는 예수님(막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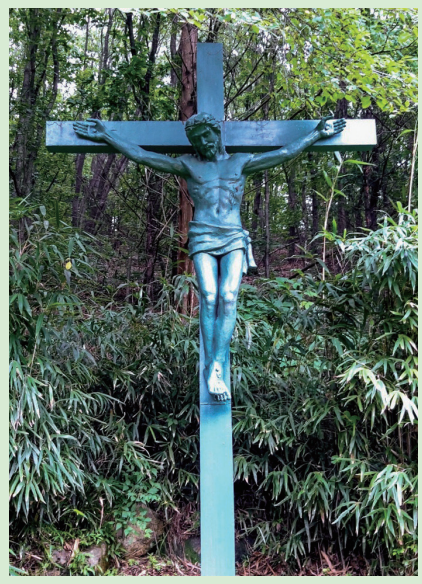
3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눅8:24)

4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 여인과 예수님(마26:12~13)

5 최후의 만찬 (막14:22~26)

6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요13:4~5)

7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눅2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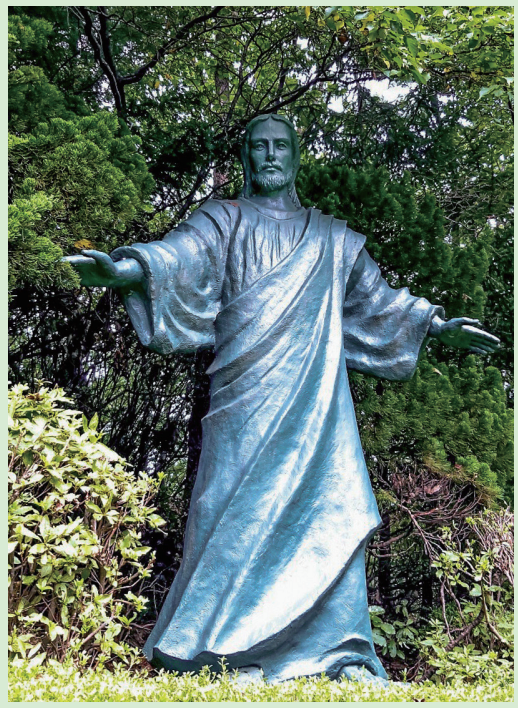


8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눅23:33~38)

9 부활하신 예수님(눅24:13~31)

10 빈 무덤과 부활(요20:1~18)

KWANGLIM Prayer MOUNTAIN



11 승천하시는 예수님(행1:6~11)

광림수도원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추자길 107 (031. 766. 4917)

에베소 광장

광림수도원 기도공원 입구에는 야외 음악당인 〈에베소 광장〉이 있다.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다. 2005년 4월 13일 봉헌하였으며 2015년까지 5회의 에베소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광림교회 성도는 물론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통로가 되었고, 성도들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었다. 〈에베소 광장〉의 이름의 의미는 기도공원에 오르기 전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와 복음의 열정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두 차례 전도여행을 했던 도시이고, 사도 요한의 무덤교회가 있는 곳이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다.

광림수도원 〈에베소 광장〉은 공연장으로도 사용되지만, 많은 이들이 개인적인 묵상을 하거나 소그룹 모임 등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아이들에게 직접 가지 못해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요”

〈2020 광림교육선교〉 7월 한 달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지난해 교육선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 저 생각나요? 저는 선생님 생각나는데...”
“우리 언제 만나요, 코로나 끝나고 꼭 다시 만나요.”
“저는 내년에 중학생이 되어 올해가 마지막 여름성경학교인데 너무 아쉬워요.”

광주하남 예수공동체교회 어린이들

광림교회 청년들과 그동안 함께 했던 여름성경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름성경학교를 열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겨진 사랑과 은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를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주하남 예수공동체교회 김영내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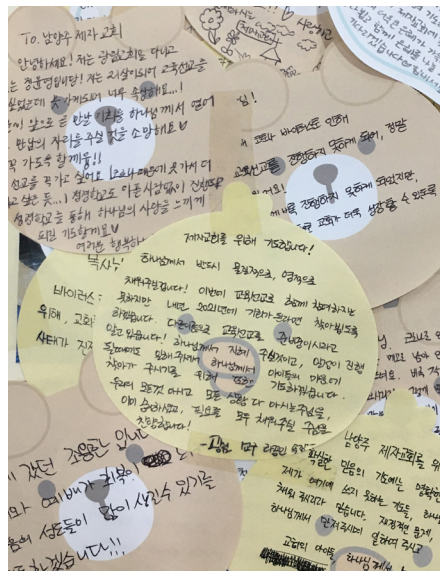
광림의 청년들을 통해 제자교회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우리의 만남을 갈라놓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자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주신다는 소식이 큰 위로가 되며 대면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 제자교회 지영호 목사

청년들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섬겨

〈2020 광림교육선교〉가 7월 한 달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육선교의 문이 닫힌 상황 속에서 광림의 청년 100여명은 매주 목요일 저녁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중보기도회를 가졌다. 3주에 걸친 기도회를 통해 청년들은 10개 지역 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각자의 오병이어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

청년들의 정성과 남선교회의 후원금이 더해



져 각 지역교회에 여름성경학교 진행용품과 50만원 상당의 전도용품, 비대면 체온계, 마스크 등의 코로나19 관련 용품을 전달했다. 그 과정 중 순창지역과 단양지역 교회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로금을 준비하여 보수공사가 진행되도록 도왔다.

정윤영 성도는 “21살이 되어 첫 교육선교를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코로나로 못 가게 되어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고, 교육선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내년이 더욱 기대 된다”고 했다.

박현서 팀장은 “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큰 은혜였고 도전이었습니다. 갈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욱 마음이 쓰인다”며 속히 복구되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청년헌신, 지역교회 회복과 부흥 밑거름

2008년 여름 처음 시작된 ‘국내교육선교’는 올해로 13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광림청년들은 전국 60여개 중소지방지역을 누비며 미자립교회를 찾아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선교를 통해 만났던 아이들 중 일부는 청년이 되어 각 지역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졌으며,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했던 광림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주송 목사(청년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청년부의 사명인 ‘여름교육선교’의 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함께 모여 기도했고, ‘후방선교’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3주간의 중보기도와 과부의 두 렙돈 같이 작은 헌금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역 교회의 회복과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또 힘든 상황에서도 정성을 다해 후방선교에 참여한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청년들을 청년부로 보내주셔서, 앞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전·후방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편집인 김대영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재현 김혜경 박신애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net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